

반 성 문

존경하는 재판장님께,

저는 이번 공무집행방해 사건의 피고인 ○○○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공무를 수행하시던 분들께 큰 피해와 불쾌감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당시 저는 순간적인 감정에 휘둘려 이성을 잃었고, 결과적으로 사회 질서를 해치는 행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잘못이 얼마나 무겁고 부끄러운 일인지 이제야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저는 사건 이후 스스로를 돌아보기 위해 온라인으로 재범방지교육을 수강하였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제 안의 감정 패턴과 사고방식의 문제를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되었고,

특히 충동적인 행동이 발생하기 전의 인지 과정과 감정 흐름을 조절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교육을 들으며 ‘순간의 감정이 인생 전체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현재 저는 그 내용을 일상 속에서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정이 올라올 때는 즉시 호흡을 가다듬고, 한 걸음 물러서서 상황을 바라보며,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주나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통제하기 위해 생활습관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저는 ‘공무집행방해’라는 범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사회와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임을 명확히 깨달았습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법을 존중하며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 경솔한 행동으로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이번 일을 인생의 경고로 삼고, 성찰과 절제의 자세로 살아가겠습니다.

2025년 ○월 ○일

피고인 ○○○ (서명)